사회 광주매일신문 (제8802호)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광주사랑의열매 '기부자 명예 전당' 개소

서구 연계 구청 로비 조성…키오스크 통한 소액 기부 가능 '서구 Honors' 가입식도···"기부자 예우 강화로 나눔 확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구가 나눔 실천 후원자를 예우하기 위한 명 예의 전당을 조성했다.

7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 주사랑의열매)에 따르면이날 오후 광주 서구청 1층 로비에서 '착한나눔터치 기부 자명예의전당'오픈기념식및'서구Hon ors'회원가입식을가졌다. 〈사진〉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은 지난달 광주 사랑의열매와 서구가 체결한 '착 한 도시 서구, 착한 나눔 네트워크' 협 약의 일환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 자에 대한 예우와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함이다.

행사에는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김이강 서구청장과 서구의회 의 원, 서구 Honors 등 30여명이 참석했으 며 ▲식전공연(팝페라) ▲명예의 전당 오프닝 및 기념촬영 ▲서구 Honors 회 원 가입식 등이 진행됐다.

착한나눔터치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서구청 1층에 가로 7.7m, 세로 3.2m 규 모로 '기부 키오스크', '대형 LED전광 판', '헌액판' 등이 마련됐다.

방문객은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신 용카드·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1천원 이상 소액 기부가 가능하며, 대형 전광 판을 통해 서구 Honors의 기부 철학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외 서구 Honors 명예 기부자 홍보 존, 포토존 등도 꾸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서구와 광주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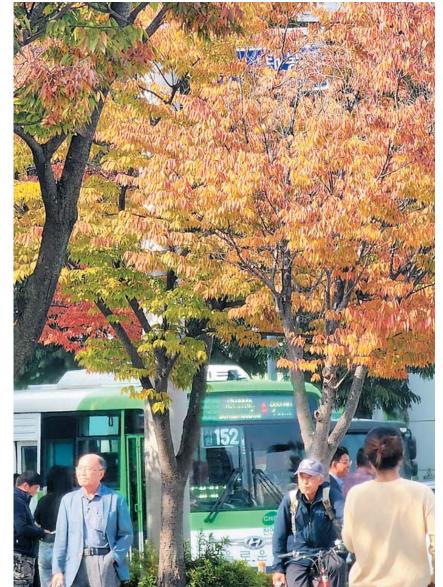


의열매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서구 Honors' 회원 가입식도 이뤄졌다.

서구 Honors는 사회 취약계층의 다양 한복지 지원을 위해 결성된 후원자 그룹 으로 광주 사랑의열매에 3천만원 이상을 일시납부했거나 5년간 기부를 약정한 개 인및기업·법인대표들의모임이다.

가입자는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최무진㈜나눔테크대표 ▲이미 진 대명엘리베이터 대표 ▲추경화 사회 복지법인 권동식아벤티노재단 이사장 ▲유혜린 닥터스피부과(상무점) 원장 ▲배창숙 천지문화원 대표 ▲문순자 한 미건설㈜대표 ▲이주상 동명건설㈜대 표 ▲서광병원 서해현·류혜경 원장, 류 경주 경영원장 ▲서상우 서구노인종합 복지관 관장 ▲김원만 (유)새한플러스 대표 ▲김해란 옥과한우촌 대표 ▲ 김 세열 상무병원 원장 등 15명이다.

박철홍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은 "기 부문화 활성화와 기부자의 명예가 존 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제로, 1년 12달이 행복한 복 지 도시, 착한 서구로 발돋움 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 /주성학기자



울긋불긋 가로수 단풍

로수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전남 수능 응시 3만787명

전년比 1천235명 ↑ … 시험장 83개 운영

광주·전남지역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수능) 응시자가 전년도보다 1천23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 025학년도 수능이 오는 14일 오전 8시40 분부터 광주 38개 시험장·612실, 전남 7개 시험지구·45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광주 수능 응시자는 1만6천846명으 로, 재학생 1만1천684명·졸업생 4천420 명·검정고시 등 742명 등이다. 전년 대 비 757명(재학생 572명·졸업생 88명·검 정고시 등 기타 97명)이 늘었다.

전남 응시자는 1만3천941명으로 전 년 대비 478명(재학생 458명·졸업생 4 명·검정고시 등 16명)이 증가했다.

시험실당 학생 수는 코로나19방역조 치에 따라 24명으로 축소했던 데서 기 존 28명으로 환원됐다.

일 각 시험장에 장학관 이상 점검관을 파견해 제반시설 등을 최종 점검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수험생들이 편 기했다. 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 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계획"이 라며 "11일부터 운영되는 광주 수능 종

합상황실과 12일 문답지 보관소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이기자

광주 첫 반려동물 장례시설 '물꼬'

광주 광산구는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가 소유 건물을 묘지 관련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는 광산구 양동에 소유 한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198.44㎡) 건물을 동물 화장장·납골당(96.06㎡)과 동물 장례식장(102.38㎡)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시설을 갖춰 지자체의 영업허기를 받게 되면 광주 첫 반려동 물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

앞서 A사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 수능에 앞서 시교육청은 오는 11-13 치를 위해 2022년 광산구에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광산구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소송을 제

>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거쳐 입지 기준 을 충족했다고 보고 광산구의 불허 처 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옥근기자



올해 10월 역대 가장 덥고 비 많이 내렸다

광주·전남 평균기온 18.2도·강수일수 12.3일 '1위'

올해 10월 광주·전남은 기상 관측 이 래 제일 더웠고 비도 가장 자주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의 날씨

7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10월 광주 ·전남 평균기온은 18.2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평년(16.2도) 보다 2도 더 높았 으며, 기존 1위는 2006년 17.9도였다.

평균 최저기온도 14.2도로 종전 2016 년 (13.9도)을 넘어 역대 1위로 올라섰다. 의 단풍은 평년보다 늦게 물들었다. 강수량은 평년(64.7mm)의 208.8% 수 준인 135.1mm이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강수일 각첫 단풍이 들었다.

수도 평년(5.6일)의 두 배 이상인 12.3 일로 나타났다.

🍑 해뜸 07:01 해짐 17:32 달뜸 13:00 달짐 22:59

기상청은 덥고비가 자주 내린 올해 10 월에 대해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이 평년보다 발달했고, 고기압의 가장 자리를 따라 따뜻하며 습한 남풍 계열 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자주 불었기 때 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상 영향으로 올해 광주·전남 명산

무등산은 평년 대비 4일 늦은 10월25 일께, 월출산은 6일 늦은 10월29일께 각 /안재영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용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ㆍ광주매일 ₩

후원 : 🌯 고흥군

+

문의: 062)650-2099